

#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

이석규\*

## ■ 차례 ■

- I. 머리말
- II. 현실인식
- III. 군주 중심의 봉당론과 皇極
- IV. 군주성학론에서 敬의 위치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동강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김우옹은 사림정치가 시작되는 선조대의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를 민생의 안정을 위한 기강의 확립으로 보았다. 김우옹에게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군주였다. 왜냐하면 군주는 天道의 실현자로서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시 군주에게 聖學을 요구하면서 賢臣의 역할을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볼 때, 그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은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예컨대 이항이나 이이는 '군주의 표준'을 의미하는 『書經』의 '皇極'을 군주에게 수신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김우옹은 오히려 황극을 동인과 서인을 초월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군주의 표준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숙종대 朴世采가 주장한 군주 중심의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皇極蕩平論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군주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 만큼 김우옹에게 제왕학으로서의 聖學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는 오직 敬을 통해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군주성학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경을 강조했다는 것이 그가 군주의 修身만을 중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왕의 학문은 현실 정치에 확대 적용되어야 진정한 제왕학이고, 왕도정치의 이념은 정치 현실에서 실질적인 공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내면의 修己는 오히려 治인과 관련될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었다. 경을 강조했던 그가 경의 주제 대상에 치인까지를 포함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 주제어

김우옹, 경세론, 황극, 봉당론, 군주성학론

## I. 머리말

東岡 金字顯(1540~1603)은 선조대에 활동한 유학자이며 정치가로서, 栗谷 李珣(1536~1584)와 더불어 16세기 조선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인물이다. 학문적으로는 南冥 曹植의 문인이면서도 당대에 退溪의 문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李滉의 영향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東人에 가까우면서도 당색을 고집하지 않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김우옹은 자신을 어느 한 집단에 예속시키지 않았다.

학과나 당파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현실 정치였다. 성리학의 철학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꽤 나타나지만, 김우옹은 의도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온전히 성리학의 실천적 측면, 즉 道學에

있었다. 당시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화두였던 셈이다.

김우옹에게서 나타나는 이같은 특징은 동시대를 함께 경험했던 이이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다 할 사승관계가 없는 학문적 자유로움, 끝까지 사림의 분열을 막으려 했던 정치적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경세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우옹과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선조대의 정치무대에서 수많은 발언을 하였고,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이들의 발언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두 사람은 각기 『經筵講義』와 『經筵日記』를 남길 정도로 선조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다. 이 시기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김우옹과 이이가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이에 비해 김우옹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철학 또는 한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sup>1)</sup> 이를 통해 그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은 대체로 밝혀졌다고 할

1) 金光淳, 「東岡의 生涯와 思想的 志向」, 『동방학지』 36·37, 1983.  
 權仁浩, 「東岡 金宇顒의 學問과 思想研究」, 『남명학연구논총』 2, 1991.  
 李相弼, 「壬亂時 在朝 南冥門人의 活動」, 『남명학연구』 2, 1992.  
 韓相奎, 「金東岡의 教育思想」, 『남명학연구논총』 3, 1995.  
 權仁浩, 「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 『남명학연구논총』 5, 1997.  
 金洪永, 「東岡 金宇顒의 讀書論과 學問的 性向」, 『남명학연구』 6, 1997.  
 鄭羽洛, 「金宇顒의 經典理解方法과 『聖學六箴』의 意味構造」, 『동방한문학』 16, 1999.  
 \_\_\_\_\_, 「金宇顒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精神構圖의 特性」, 『한국사상과 문화』 7, 2000.  
 李相夏, 「東岡 金宇顒의 出處와 學問」, 『남명학연구』 11, 2001.  
 宋準湜, 「東岡 金宇顒의 帝王教育論」, 『남명학연구논총』 10, 2002.  
 蔡輝鈞, 「東岡 金宇顒 『天君傳』의 教育적 의미」, 『남명학연구논총』 12, 2003.  
 이영호, 「東岡 金宇顒의 朱子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2007.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그의 철학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관심사였던 경세의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특히 김우옹이 강조했던 ‘敬’을 지나치게 修己의 차원으로만 인식함으로써 그가 治人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사 분야에서는 김우옹의 정치철학과 봉당론을 살핀 연구가 있어 도움이 된다.<sup>2)</sup> 그러나 주제가 제한적이고, 또 봉당과 관련해서 김우옹이 강조했던 군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김우옹의 전체 사상체계를 경세론의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우옹의 경세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조대의 정치 현실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가 강조했던 군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그의 군주성학론의 체계와 여기서 경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림정치가 시작되고 군주성학이 강조되는 선조대의 분위기에서 김우옹의 경세론이 지니는 특징과 그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우옹의 경세론을 다룬다면 마땅히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그의 입장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제한된 지면 관계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의 민본이념에서 나타나는 특징, 제도 개혁을 의미하는 變通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제도를 개혁하려 했는지 등 앞으로 살펴볼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2) 薛錫圭, 「東岡 金宇顛의 政治哲學과 朋黨論의 展開」 『남명학연구논총』 7, 1999.

## II. 현실인식

김우옹이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의 재위기간에 해당한다. 선조가 즉위한 해(1567)에 시행된 식년시에 28세의 나이로 급제한 후, 34세가 되는 선조 6년부터 본격적인 관료생활을 시작한 김우옹은 60세에 이르러 병으로 물러날 때까지 26년 동안 대부분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였다. 중간에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2년 반을 유배생활로 보내기도 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면되어 관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선조대의 온갖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관료생활의 전 시기를 보냈던 것이다.<sup>3)</sup>

선조가 즉위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사림정치는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반정으로 시작된 16세기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권력관계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연관들이 강화된 언론권을 바탕으로 언론활동을 확대해 나갔고, 다른 한편으로는 훈척들이 왕권의 비호 아래 또는 왕권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전횡하였다.<sup>4)</sup> 그 결과 사회는 계속되었고 연산군대 이래의 정치적·사회적 적폐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예컨대 이이가 한탄하면서 지적인 바와 같이, 연산군의 방탕한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증액된 貢案이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동안 아무런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sup>5)</sup>

3) 김우옹의 생애에 대해서는 『東岡集 附錄』(민족문화추진회) 卷1, 「行狀」 참조

4)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 일조각, 1994.

金墩,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 서울대출판부, 1997.

韓春順, 『明宗代 勳戚政治 研究』 해안, 2006.

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5) 『栗谷全書』 卷5, 疏筭3, 萬言封事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적폐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민에게 돌아갔다. 건국이념으로서의 민본이념은 15세기까지 현실 정치에서 작동하였지만, 16세기에 이르러 크게 변질되고 있었다.<sup>6)</sup> 민의 정치적 발언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민본정치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유교의 災異論은 이 시기에 전혀 기능하지 못하였다. 재이가 발생하면 비록 사림이라 하더라도 왕에게 추상적인 正心과 修省만을 요구할 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事功’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체도의 개혁을 통한 체제의 정비는 물론, 가뭄과 여역으로 수만 명이 죽어도 민에 대한 직접적인 진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의 저항은 도적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집단화된 群盜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임꺽정의 난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서 이들을 ‘敵國’으로까지 인식하여 대응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sup>7)</sup>

이처럼 선조대의 사림정치는 오랜 훈척정치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체도의 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민생의 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사림은 이같은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는 개혁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선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림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조 즉위 시의 영의정이었던 李浚慶이 선조 5년(1572)에 올린 遺箚에서 ‘破朋黨之私’를 거론하면서 드러난 사림의 분열 조짐이 불과 3년 만에 東·西 분당으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이후 붕당의 문제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李碩圭, 「16세기 조선의 민본이념과 民의 성장」 『한국사상사학』 39, 2011 참조

7) 한희숙, 「16세기 임꺽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89, 1995.

는 선조대의 정치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같은 선조대의 현실에 대해 김우옹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도 극복해야 할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안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였다. 선조 6년 본격적인 관료생활을 홍문관 正字로 시작하면서 행한 첫 경연에서 그는 먼저 선조대 이전 훈척이 권력을 농단하던 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국가의 列聖이 서로 이어왔는데 근자에 불행하게도 權奸이 잇달아 나와 國事를 그르쳐서 國勢가 정직한 사람이 한번 나오면 번번이 유배나 살육의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士氣가 꺾이고 國脈이 손상되어 인심이 부정하고, 예의엄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기강이 크게 문란해져 거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sup>8)</sup>

여기서 김우옹은 ‘권간’과 ‘사림’을 구분하면서, 권간으로 인해 士氣가 꺾이고 예의엄치가 없어져 인심이 부정하고 기강이 문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심의 부정과 기강의 문란이 권간 때문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간이 사라지고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인심의 부정과 기강의 문란은 여전했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김우옹의 말이다.

8)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9月 戊戌條

(선조가 즉위한-인용자) 이때를 당하여 일국의 신민이 공경히 앙망하는 마음은 모두가 비상한 공[非常之功]을 전하에게 바랐습니다. 당시에 신은 질병으로 인해 시골에 피하여 있으면서 인심을 보니 갑자기 깨달아 振勵하고 닦아 濯磨하여 지극한 은택을 입고자 하였으므로 기강이 거의 닦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인용자) 근년 이래로 인심이 해이하고 기강이 무너진 것이 거의 권간이 있을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먼 지방에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 수령과 목민의 임무를 맡은 자가 태만하여 민의 일[民事]을 염두에 두지 않으므로 조정의 명령이 민간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신은 무슨 연고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sup>9)</sup>

권간이 사라지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인심과 기강이 닦여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권간이 있을 때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김우옹에게 이 상황은 당황스러웠고, 설명이 가능한 새로운 원인을 찾아야 했다. 결국 그는 이를 군주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서 왕에게 왕도정치를 요구하였다.<sup>10)</sup> 이것은 유교 지식인으로서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김우옹의 경세론에서 군주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강이 문란하다고 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이다. 그는 수령이 민의 일에 태만하여 조정의 명령이 민간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기강이 문란하다고 하였다.<sup>11)</sup> 물론 조정의 명령

9) 위와 같음

10) 위와 같음. “臣願 殿下今日覺悟 則便從今日爲始 洗濯磨勵 大加聖志 以王道爲心 生靈爲念 而不宜過自菲薄 因循苟□ 而不復以古昔帝王自期也”(여기서의 탈자 ‘□’는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萬曆癸酉九月二十一日’의 기록에 의하면 ‘丑’자이다.)

11) 김우옹이 강조한 기강의 확립을 민생의 안정이라는 민본정치와 연결시키기보다는



을 수령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기강의 문란으로 보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문제는 김우옹이 기강의 문란이 초래한 결과로 ‘민의 일[民事]’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의 일이란 民生을 의미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대저 德政을 닦는 것은 응당 제때에 해야 합니다. 때를 지나쳐 일이 잘 못되면 또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기강이 서지 않고 법령이 행해지지 않아 民生은 날로 초췌해지고 백료가 직책에 게을러 나라의 치란과 안위를 가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sup>12)</sup>

김우옹에게는 기강이 문란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이었다.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으로서 기강의 문란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곧 민생을 살리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기강의 문란과 민생을 인과관계로 보는 시각은 확실히 이전 시기와는 달라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조대 이전, 권간이 지배하던 시기에도 기강의 문란은 자주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를 민생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권간이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sup>13)</sup> 재이가 발

---

선조대까지 남아 있던 척신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강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薛錫圭, 앞 논문, 456~475쪽).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김우옹의 경제론을 지나치게 협소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우옹은 전 생애에 걸쳐 기강의 문란이라는 현실을 민생의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12月 庚午條

13) 이하의 서술은 李碩圭, 「조선 明宗代의 求言과 民本理念의 變遷」 『조선시대사학보』

생하면 이를 ‘陰盛陽微’한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강과 명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기강이 문란하여 政事가 아랫사람에게 있는 ‘君弱臣強’의 상황이 재이를 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이를 그치게 하려면 ‘上下之分’을 엄격히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역시 왕의 ‘修德之事’라고 하였다. 기강과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를 덕치라고까지 건강부회한 것이다. 여기서 왕이 덕을 닦아 덕정을 행함으로써 민본정치를 이루려는 유교의 정치이념은 철저히 왜곡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림정치가 시작되면서 왜곡된 정치이념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덕정을 통해 민본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비록 언설로나마 자주 강조되었다. 더욱이 종래 지배층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상 언급했던 ‘立紀綱’과 ‘正名分’도, 김우옹에게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민생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사실 명분론과 민본론은 유교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예컨대 공자는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민이 수족을 놀릴 수 없다고 하였다.<sup>14)</sup> 주자도 천하에 힘써야 할 것으로 恤民보다 큰 것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홀민의 근본은 군주가 마음을 바르게 하여 기강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하였다.<sup>15)</sup> 민본정치는 명분이 바르고 기강이 세워져야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양자는 이념적으로 매우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명분과 기강을 지배층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만 이

51, 2009, 113~116쪽에 의거하였다.

14) 『論語』 卷13, 「子路」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15) 『宋史』 「列傳」 卷188, 朱熹傳, “天下之務 莫大於恤民 而恤民之本 在人君正心術以立紀綱”

용하게 되면 민본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민본정치를 강조하면 지배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다.<sup>16)</sup> 그나마 15세기에는 양자가 길항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졌지만, 정치가 문란해지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민본정치는 실종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김우옹의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 豪強들을 억제하는 한 가지 일에 조정이 자못 편벽된 뜻이 있습니다. 관리가 분위기에 따라 오로지 위엄만을 높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같이 하지 않으면 족히 上下之分을 밝힐 수 없다.'고 하여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니 아랫사람의 실정이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릇 한 가지 일이 있으면 모두가 호강의 소행이라 하여 멋대로 엄한 형벌을 가하면서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로써 호강을 참으로 복종시킬 수도 없는데 고할 데 없는 小民들이 먼저 그 폐해를 받습니다.<sup>17)</sup>

향촌의 토착세력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사료에서 김우옹은 당시 관리들에게 민생은 생각하지 않고 지배의 명분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민생을 해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명분과 기강이 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민생의 안정을 이루려 했다는 점에서 김우옹은 유교의 정치이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를 기강이 문란하여 민생이 피폐해진 시대로 보는 인식은 비단

16) 대표적인 예로 部民告訴禁止法의 제정을 둘러싼 조선 초기의 끊임없는 논란을 들 수 있다. 명분론에 근거한 이 법이 민본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이에 대해서는 李碩圭, 「朝鮮初期 官人層의 民에 대한 認識」 『역사학보』 151, 1996 참조

17) 『宣祖實錄』 卷13, 宣祖 12年 3月 辛未條

김우옹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成渾(1535~1598)·이이·金應南(1546~1598) 등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이는 수차례에 걸쳐 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이가 계속 아뢰기를-인용자) 지금 生民이 초체하고 임금의 은택은 이미 말랐습니다. 비록 조정에서 구휼하고자 하지만 은택이 아래에 이르지 않아 여항에서는 원망하며 떠드는 것이 지난 시기와 다름이 없고, 小民들은 조정이 청명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天이 군주를 세운 것은 민을 위함인데 민생이 이와 같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인심이 부정하고 관리는 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법령이 행해지지 않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성심으로 민을 위하시고 근본을 바로잡아 기강을 세운 연후에야 비로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sup>18)</sup>

조정에서는 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려 하지만 기강이 서지 않아 관리들이 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에게 은택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9)</sup> 여기서 이이의 현실인식이 김우옹과 완전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사림정치가 시작되면서 과연 민본정치가 행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는 마련된 셈이었다. 그런데 이이는 기강이 문란한 현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8) 『宣祖實錄』 卷9, 宣祖 8年 6月 辛卯條

19) 이이는 그의 『聖學輯要』 「爲政」편을 구성하면서도 ‘立紀綱’ 뒤에 ‘安民’을 배치하고는, 이같은 배치에 대해 기강이 선 후에야 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栗谷全書』 卷25, 『聖學輯要』 7, 爲政 下, ‘安民’). 후일 영조는 『성학집요』의 이 배치를 주목하여 ‘입기강’을, 이이와는 달리 신하들의 질서와 규율을 세우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탕평정책에 추진력을 얻으려 했다고 한다(윤정, 「英祖의 『聖學輯要』 이해와 君師 이념」, 『역사와 경계』 66, 2008).

오늘날 나라에 기강이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구습을 따르다면 다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위에서부터 큰 뜻을 분발하여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하여 警勅함으로써 대신과 백료를 일시에 振發시켜 기강을 세운 후에야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인용자) 기강은 법령과 형벌을 가지고 강제로 세울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이 公正함을 얻고 私情이 행해지지 않은 후에야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 공이 능히 私를 이기지 못하고 正이 능히 邪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찌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sup>20)</sup>

이이는 기강을 법령과 형벌을 통해 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데 公正함이 있어야 기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기강의 문란은 곧 공이 무너지고 私가 횡행하는 상황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公正·公論·公道를 행하는 것과 기강을 세우는 것은 동일시되었다. 이같은 이이의 견해에 대해 김우옹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때문에 그는 公正·公론·공도를 대변하는 대간이 제구실을 못하면 기강을 세울 수 없다고 하였다.<sup>21)</sup>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분열에 따라 분당이 현실화된 상황이었다. 사람이 분열했다는 것은 公正·公론·공도가 하나로 일치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김우옹이나 이이에게 그것은 또한 기강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사대부들의 의논이 같지 않다는 어떤 신하의 언급에 대해 김우옹이, “이것은 모두 기강이 서지 않고 정사를 통할하여 거느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공론의 분열을

20)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10月 己未條

21) 『宣祖實錄』 卷9, 宣祖 8年 6月 辛卯條, “字顯曰 我國紀綱所係 專在臺諫 臺諫不能效職 則紀綱隳矣 須有以開納 而振非其氣可也”

기강과 관련시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모두 사람의 분열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였다. 비록 이이는 ‘兩是兩非論’의 입장이었고 김우옹은 ‘是非分辨’을 통한 ‘揚是抑非論’을 주장한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방안 모두 사람의 보합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다.<sup>22)</sup>

이처럼 김우옹은 당시의 현실을 기강이 문란한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으로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전 권간이 지배하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임진왜란의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하였다.<sup>23)</sup> 이 문제가 그에게는 평생의 화두였고 그의 경세론이 지닌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 Ⅲ. 군주 중심의 봉당론과 皇極

기강을 확립하고 이로써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닌 김우옹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군주였다. 때문에 그의 경세론에서 군주가 차지하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당시 사람은 성인의 학문인 ‘聖學’을 왕에게도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군주가 도덕군주가

22) 薛錫圭, 앞 논문, 463~481쪽

23) 『宣祖實錄』卷51, 宣祖 27年 5月 辛卯條, “國步迍邁 豺虎在邊 往年暴師 糧運不繼 民窮財竭 盜賊滿山 其危急之勢 如一髮之引千斤 而內則朝政不舉 百司怠弛 大綱小紀 紊舛失敘 外則將臣玩愒 守令貪橫 膏澤不下 暴政日加 民心已離 國事已去 當此之時 上裨宸聽 下肅具僚 整頓頹綱 扶持人紀 非有命世之才 莫能及也”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주는 어진 신하인 군자를 등용하여 국정 운영을 함께해야 한다는 ‘君臣共治’의 인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24)</sup> 특히 이같은 인식은 이이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聖學輯要』에서 그는 군주를 사대부의 일원으로서 사대부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군주권의 원초적 한계를 설정하였고, 군신 관계에 대해서도 양자를 相補的 관계로 설정하였다.<sup>25)</sup> 이처럼 당시에는 도덕군주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어진 신하인 군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물론 김우옹도 여러 차례 賢臣과 함께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군신공치나 또는 상보적 관계로까지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의 경세론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군주였다.

천하의 일은 모두 군주의 한 몸에 근본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天道이면서 天道이고, 신하는 子道이면서 地道입니다. 지도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천도를-인용자) 대신하여 마침이 있을 뿐입니다. 땅은 홀로 사물을 낳는 것이 없고 신하는 홀로 이루는 功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주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sup>26)</sup>

이것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관련해서 중국사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고, 조선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었던 商나라 太甲과 伊尹의 관계에 대해 경연에서 논쟁이 있었을 때 김우옹이 한 말이다. 태갑이 왕 노릇을 제

24) 鄭在薰, 「朝鮮前期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 1998, 122~134쪽  
김정신, 「朝鮮前期 士林의 ‘公’ 認識과 君臣共治論」, 『학림』 21, 2000, 73~84쪽

25) 鄭在薰, 「『聖學輯要』를 통해 본 朝鮮中期의 政治思想」, 『규장각』 22, 1999, 112~115쪽

26)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11月 壬寅條

대로 하지 못하자 재상이던 이윤이 그를 내쫓았다가 태갑이 반성한 뒤에야 다시 왕위를 돌려준 고사에 대해, 먼저 이이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忠信으로 서로를 허여하였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충신을 매개로 한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위의 인용문에서 김우옹은 천하의 모든 일은 군주 한 몸에 근본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신하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 논리에 따라 그는 비록 이윤과 같은 어진 신하가 있었다라도 태갑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욕심대로 했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군신 사이의 관계보다는 天道의 실현자로서 군주라고 하는 독자적·절대적인 존재의 지위와 역할에 방점을 둔 것이다.<sup>27)</sup> 그가 당나라 張蘊古의 大寶箴을 인용하여, ‘황천이 임금을 세운 것은 오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군주의 독자적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sup>28)</sup>

천도의 실현자로서 군주가 김우옹에게 일의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다는 점은, 그가 당시 동·서의 분당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군주의 ‘皇極之道’를 가장 먼저 제시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書經』 「周書」의 洪範에서 비롯된 ‘황극’은 주자 이래 일반적으로 ‘군주의 표준’을 의미하였다.<sup>29)</sup> 즉 군주가 수신을 통해 일신에 大中至正한

27) 여기서 말하는 군주의 ‘독자적·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료 또는 사대부와 구별되는 군주의 지위와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도의 실현자로서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유일한 존재, 따라서 정치의 득실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의 지위와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28)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4月 丁巳條, “宇顥啓曰 皇天爲民立君 非以天下奉一人 唯以一人治天下耳 人君不知此義 而以位爲樂 則逸豫之念生 而危亡之禍至矣”

29) ‘황극’의 경전적 의미와 이에 대한 해석의 변천에 대해서는 金伯哲, 「조선 후기 영



표준을 세우면 사방에서 이를 취하여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극은 정치에서 군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군주권을 강화하고 군주 주도의 정치운영을 지지했던 權近(1352~409)이 자신의 군주론을 뒷받침하는 경전적 근거를 황극에서 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sup>30)</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황극은 군주에게 수신을 요구함으로써 군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사림이 등장한 이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의 황극은 주로 군주에게 수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인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황은 그의 ‘戊辰六條疏’에서 ‘建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주 수신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이었다.<sup>31)</sup> 이이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는 『성학집요』 「爲政」편의 맨 앞에 총론을 서술하면서 여러 차례 황극을 언급하였다.

신은 생각하건대 인군의 修德은 爲政의 근본입니다. 먼저 군주의 직분이 민의 부모라는 것을 안 연후에 中과 極을 세워[建中建極] 표준으로 삼으면 그 공효는 마치 못 별들이 그것을 둘러싼 것과 같을 것입니다.<sup>32)</sup>

이이는 군주의 수신이 정치의 근본이라 하면서 ‘建中建極’을 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위정편의 총론을 마무리하면서는 이 건증건

조대 백성관의 변화와 ‘民國’, 『한국사연구』 138, 2007, 134~136쪽 참조

30)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264~280쪽

31) 『退溪集』 卷6, 「疏」, 戊辰六條疏, “臣愚伏願 聖上唯當顧諟天之明命 恭己南面 推誠腹心 明目達聰 建中于民 建極于上”

32) 『栗谷全書』 卷24, 「聖學輯要」 6, 爲政 上, ‘摠論爲政’

극이 다름 아닌 수신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sup>33)</sup>

이처럼 황극은 군주권을 강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군주권을 제약하는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김우옹이 활동하던 선조대에는 본격적인 사림정치가 시작되면서 거의 대부분 황극이 군주의 수신을 요구하는 경전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유독 김우옹은 이를 사림의 분열을 막기 위해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였다. 물론 김우옹이 군주권의 강화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동·서 분당으로 인한 사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大公至正한 도로써 군주가 표준을 세울 것[建極]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다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우옹이 왕에게 아뢰기를, “근래 조정이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대개 沈義謙과 金孝元이 서로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김효원의 사람됨은 자못 탁류를 없애고 청류를 일으키고자[激濁揚淸] 분명하게 是非를 나누어 淸議를 부지하려 했습니다. 심의겸 또한 훈구로서 사림을 보호한 공이 있지만, 외척으로서 정치에 간여하여 자못 기세가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김효원에게도 경솔한 병이 있으니 일을 처리하면서 어찌 모두가 선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겸 또한 공로가 있고 별로 국가에 화를 끼친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대부 사이에 의논이 같지 않아 거의 반반에 이르니 이로써 사람의 선악을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왕께서 마땅히 大公至正으로써 위에서 황극을 세워 피차를 구분할 것 없이 오직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불화가-인용자) 없어지고 크게 화평할 것입니다.”<sup>34)</sup>

33) 위의 글, “所謂修身者 卽建中建極之謂也”

34) 『宣祖實錄』 卷13, 宣祖 12年 3月 庚午條

동·서 분당의 계기가 된 沈義謙과 金孝元의 대립에 대해 김우옹은 김효원의 입장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심의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때문에 그는 양자를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군주가 대공지정한 표준을 세워 피차를 구분하지 않고 다만 선하면 상을 주고 악하면 벌을 주는 것뿐임을 제시하고 있다. 군주가 대공지정한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군주의 수신이 전제되어야 했고, 이 점에서는 김우옹도 이황이나 이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sup>35)</sup> 그러나 김우옹은 단지 군주에게 수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만 황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황극은 분열된 사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때의 황극은 동인과 서인을 구분하여 어느 한쪽을 편드는 그런 표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차의 구분을 초월하여 오직 선과 악만을 판단하는 대공지정한 군주의 표준이었다. 여기서 김우옹이 말하는 군주는 사대부와 동일선상에서 ‘공치’를 한다거나 ‘상보적’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도의 실현을 위해 표준을 가지고 사대부를 판단하는 독자적·절대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이 표준에는 동인과 서인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고, 분열과 대립은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황극을 통해 붕당 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다는 김우옹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선조 16년(1583) 병조판서 이이가 병권을 전횡했다는 것을 빌미로 일어난 이른바 ‘癸未三竄’으로 동·서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김우옹은 또다시 황극을 거론하였다.

35) 『宣祖實錄』卷8, 宣祖 7年 10月 甲寅條, “殿下聰明之德 性之於天 惟能防一己之偏 憲天而不作 虛己受言 任賢使能 合天下之善 則聰明之德全 而皇極之道建矣”

무릇 이같은 곡절(‘계미삼찬’과 관련된 동·서의 대립을 지칭-인용자)에 는 마땅히 성상께서 헤아려 보아 밝게 비추어 상황을 정밀하게 살피고 하늘 과 바다가 포용하듯이 치우치지 않으신다면 사론의 격렬함도 또한 建極의 아래에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화평의 복 역시 이를 것입니다.<sup>36)</sup>

여기서도 군주는 피차의 대립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대립 을 초월하여 자신이 세운 표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함으로써 사대부의 대립을 화평으로 바꾸는 존재였다. 시비분변을 통해 사림의 調劑保음을 주장했던 김우옹이 시비를 분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오직 군주만을 상징 한 것이다.

군주가 황극을 통해 붕당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군주 중심의 붕 당론은 김우옹이 처음 제시한 것이었다.<sup>37)</sup> 다만 柳成龍(1542~1607)이 歐陽脩의 붕당론을 언급하면서, 붕당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皇極之學’이 필요하다고 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시 동인과 서인의 대립을 염두에 두고 선조에게 요구한 말이 아니라 중국 역사에 있었던 붕당의 화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sup>38)</sup> 또한 이이의 조제보합론이,

36) 『宣祖實錄』 卷17, 宣祖 16年 7月 戊戌條

37) 김우옹의 붕당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석규의 앞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김우옹이 붕당 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군주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이를 황극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황극당평론을 제기한 것은 유성룡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薛錫圭, 앞 논문, 479쪽),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8) 『西厓集』 卷13, 「雜著」, 「歐陽子朋黨論」 이와는 별도로 『大東野乘』에는 유성룡이 지 었다는 「雲巖雜錄」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선조대의 당쟁을 직접 언급하면서 당 쟁의 이유로 황극이 서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大東野乘』 卷55, 「雲巖雜錄」, 「朋黨」). 이것이 유성룡의 저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데(『牛溪集 年譜補遺』 卷2, 「雜錄」 下), 설령 이것이 유성룡의 저술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그가 당 쟁의 해소를 위해 선조에게 적극적으로 군주의 역할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단지

숙종대 이후 탕평 정국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朴世采(1631~1695)의 ‘皇極蕩平論’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박세채 스스로가 이이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9)</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이는 황극을 군주에게 수신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적은 있지만, 이를 당쟁의 해소를 위해 군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적은 없다. 따라서 박세채는 다만 이이가 조제보합을 통해 당쟁을 막으려고 힘썼던 것을 본받았을 뿐, 그의 황극탕평론 자체는 이이의 봉당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의 핵심은 봉당 간의 대립을 해소시키는 주체로서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인물의 변별이나 시비의 판정을 군주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종래의 ‘신료중심적 봉당론’으로부터 ‘군주중심적 봉당론’으로 전환시키는 논리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이었던 것이다.<sup>40)</sup> 그렇다면 황극탕평론의 원형은 이이가 아니라 오히려 김우옹에게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김우옹의 봉당론이 광해군대의 복인 정권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함으로써 인조대 이후 서인 집권기에 제기된 봉당론이나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으로 계승되지 못한 한계는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황극을 통해 군주가 시비 분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군주 중심의 봉당론이 김우옹에 의해 사림이 분열하는 초기부터 제기되

---

정국 혼란의 원인을 서술하면서 황극을 언급하는 데 그친 것이다.

39) 禹仁秀, 「朝鮮 肅宗朝 南溪 朴世采의 老少仲裁와 皇極蕩平論」, 『역사교육논집』 19, 1994, 106쪽

40)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44~145쪽. 우인수도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의 핵심 내용을, 봉당의 대립 갈등을 해소시키는 조제의 책임자 내지 실현자로 군주를 주목하고 군주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禹仁秀, 위 논문, 106~110쪽).

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봉당론을 포함한 김우옹의 경세론에서 군주의 존재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였다. 때문에 설령 민이 잘못하더라도 그 책임은 군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sup>41)</sup> 여러 차례 時務策을 올리면서도 그는 항상 大本으로서의 군주의 一心이 전제되어야 법과 제도가 행해질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sup>42)</sup> 또한 당시 논란이 되었던 향약의 시행에 대해, 이이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군주의 표준인 황극이 세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sup>43)</sup> 사림정치가 시작되고 도덕 군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에서 군주의 존재에 대한 그의 강조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군주성학론에서 敬의 위치

군주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 만큼 김우옹에게 제왕학으로서의 성학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곧 군주가 표준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군주의 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선조 6년 9월에 있었던 그의 첫 경연 강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강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다.<sup>44)</sup>

41) 『宣祖實錄』 卷11, 宣祖 10年 5月 庚寅條

42) 『東岡集』 卷10, 「獻議 私議」, 「備邊司獻議」; 『東岡集』 卷8, 「筭」, 「中興時務筭」

43) 『宣祖實錄』 卷19, 宣祖 18年 3月條

44)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9月 戊戌條 이하의 서술은 이에 근거한 것이므로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는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人事의 득실이 하나같지 않고 天地의 氣數 또한 차고 이지러짐[盈虛]과 변하고 순환함[消息]이 있어 世道에는 오르내림이 있고 人心에는 순후함과 경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치[天理]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民彝]는 萬古가 하루같으니 군주가 일신에 황극을 세워 만민을 이끄는 것 말고는 애초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김우옹은 世道와 人心을 하나로 하고 天理와 民彝를 또 다른 하나로 구분하여, 전자는 변하는 것이고 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후자 즉 천리와 민이가 곧 군주가 세워야 할 표준임을 말하고 있다. 이 천리와 민이가 三綱五常의 도리임은 물론인데, 김우옹에게 그것은 虞·夏·商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古道였고, 이 고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경세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고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舜·禹·湯의 心法을 따라야만 했다. 이들의 심법은, 비록 ‘精하고 一하여 그 中을 잡아야[惟精惟一 允執厥中]’ 한다는 것과 ‘禮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義로써 일을 다스려 民에게 中을 세워야[以禮制心 以義制事 建中于民]’ 한다는 것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모두가 변치 않는 고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김우옹에게 그것은 동일한 심법이였다. 그리고 이 심법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할 곳은 단지 ‘敬’ 한 글자에 있을 뿐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이것이 군주성학론에 대한 김우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경에 대한 김우옹의 중시는 그가 남명의 문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같은 남명 문하이면서 상대적으로 義를 더 강조했던 鄭仁弘(1535~1623)과 구분되기도 한다.<sup>45)</sup> 김우옹의 경에 대한 인식과 그의 사상에서 경이 차지하는 중심적

45) 權仁浩, 앞 논문, 1991, 27쪽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 결과 김우옹은 ‘修己’와 ‘治人’ 가운데 수기를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연 김우옹이 치인보다 수기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살피고 싶은 것은 그가 강조했던 경의 적용 범위이다. 즉 그가 말하는 경이 과연 수기의 차원에서만 언급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우선 그는 선조 8년 2월에 올린 ‘存心養性箴’에서 경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개 心이라는 것은 主宰하는 것이니 반드시 잡아서 보존해야지 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바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性이라는 것은 天理이니 반드시 따라 행하여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存心養性은 곧 聖學의 요령입니다. 그러나 心은 본래 性을 통솔하므로 心은 性을 다할 수 있으니 이 心 가운데 실로 이 性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心을 보존한다는 것은 곧 性을 기르는 것입니다. 心을 보존하는 방법은 단지 敬에 지나지 않습니다. 敬이라는 것은 動靜을 관통하고 表裏를 꿰뚫어 항상 一心의 주장이 되어 萬事의 綱領을 이끄는 것입니다.<sup>46)</sup>

김우옹은 남명의 문인답게 성리학의 이기론에 대해서는 평생토록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심성론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 위의 인용문에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심성론의 핵심이 담겨 있다. 心은 주재이고 性은 천리라는 성리학의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심은 성을 통솔하므로 성을 다할 수 있으니 심 가운데 성이 갖추어진 것이고, 따라서 심을 보존하는 存心과 성을 기르는 養性은 같은 의미라는

46) 『東岡集』 卷15, 「箴」, ‘進御書存心養性箴’



것이다. 그러면서 심을 보존하는 방법[存心之道]은 단지 경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경의 개념은 ‘動靜을 관통하고 表裏를 꿰뚫어 항상 一心의 주장이 되어 萬事의 강령을 이끄는 것’이었다.

물론 경에 대한 김우옹의 이같은 인식 자체는 주자와 다를 바 없고 또 이황이나 이이의 인식과도 대동소이하다.<sup>47)</sup> 그렇기는 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김우옹이 경을 動과 靜, 表와 裏 모두에서 주장이 되어 ‘만사의 강령[萬事之綱]’을 이끄는 것이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은 단지 수기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의 발언에서 좀 더 분명해진다.

敬이라는 한 글자는 一心의 主宰이며 萬事의 根柢입니다. 敬이라는 것은 단지 홀로 자신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모름지기 體가 서고 用이 행해져 일 [事]에 응하고 物에 접하는 곳이라면 그 敬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sup>48)</sup>

경은 내면의 심을 다스릴 때뿐만이 아니라 그 심이 외면의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접촉하여 드러날 때에도 심의 주재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의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바르게 한다[敬以直內 義

47) 이이는 『聖學輯要』에서 경에 대한 주자의 언설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주자의 「敬齋箴」을 부기하기도 하였다(『栗谷全書』 卷21, 「聖學輯要」 3, 修己中, 正心, ‘通論涵養省察’). 그 내용을 보면 김우옹의 경에 대한 인식은 주자에 근거한 것이고 이이와도 공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황 역시 경을 위주로 하여 『聖學十圖』를 지으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敬齋箴圖」를 포함시켰다.

48) 『宣祖實錄』 卷15, 宣祖 14年 1月 辛卯條 이에 의하면 위의 말을 한 사람이 김우옹인지 아니면 다른 신하인지 불확실하지만, 『東岡集』에 의하면 이 말은 김우옹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東岡集』 卷14, 「經筵講義」 辛巳 1月 26日).

以方外]’는 구절에 대해서도 이이가 ‘경이직내’와 ‘의이방외’를 구분한 데 대해, 김우옹은 ‘경이직내’하면 ‘의이방외’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이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sup>49)</sup> 이는 경과 의를 體用·本末의 관계로 보는 것으로, 이럴 경우 의는 경의 주재에 의해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의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내면의 심뿐만 아니라 외면의 행위 규범까지 경의 주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김우옹의 입장은 매우 철저하고 일관된 것인 바, 그가 이를 강조한 이유는 내면의 수기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왕이 경연에서 侍臣에게 이르기를, “나는 (마음이-인용자) 움직이는 지점에서 쉽게 (마음이-인용자) 교란되는 것이 걱정인데 어째서 그런가?” 하니, 盧守愼이 아뢰기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한갓 章句에만 마음을 쓴다면 어찌 청명한 때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좋기는 합니다만 모름지기 기미를 살피고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여 항상 천리가 있게 하면 마음이 곧 맑아질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만 의리가 밝게 드러나서 일[事]에 대응할 때 마땅함을 얻기 위한 것뿐입니다. 만약 事物과의 접촉을 끊고서 마음이 청정하기를 구한다면 이단에 빠질 것입니다.<sup>50)</sup>

여기서 선조가 걱정했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盧守愼과 김우옹의 답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선조가 걱정했던 것은, 마음공부를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서 어떤 결정을 해

49) 『東岡集』 卷11, 『經筵講義』 癸酉 9月 21日, “珥因極陳政事間得失之事而曰 敬以直內 又須義以方外 宇顛曰 眞能敬以直內 則義以方外 在其中矣”

50) 『宣祖修正實錄』 卷8, 宣祖 7年 11月 辛未條

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마음이 혼란스러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공부가 현실 정치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김우옹은 마음공부를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양자를 별개로 인식하는 선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전에도 지적한 바 있었다.<sup>51)</sup> 그러나 여전히 선조는 현실 정치에서 과단성 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였는데, 이를 선조 스스로도 알고 이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우옹은 내면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것이 현실 정치에서 의리에 맞는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즉 내면의 수기는 그 자체가 아닌, 현실의 치인과의 관련하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면의 수기만을 추구하면 이단과 다를 바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김우옹은 경을 수기의 측면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수기와 치인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경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의미의 경을 중심으로 군주성학의 체계를 세웠는데, 그것이 곧 선조의 명으로 작성한 「聖學六箴」이었다. 여기서 김우옹은 자신이 생각한 성학의 핵심 내용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제왕의 학문은 章句와 記問을 익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에 실질적으로 체득하여 현실에 베풀어진 연후에야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것을 생각하여 이에 감히 예전에 들은 것을 뽑아 반복 탐구하여 말할 만한 것 여섯 가지를 얻었습니다. 무릇 定志를 우선하여 因循淺俗한 말에 흔들리

51) 『宣祖修正實錄』卷7, 宣祖 6年 9月 1日 戊寅條, “近日伏觀 聖學高明 所知極廣矣 然政事間未見其效 無乃有書白書 我自我之病乎”

지 마소서. 講學으로 넓혀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사물의 이치에도 밝지 못함이 없도록 하소서. 敬身은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니 本領의 공부입니다. 克己는 인욕을 막는 것이니 力行的 요체입니다. 오직 군자를 가까이 친해야[親君子] 덕성을 보양할 수 있고, 오직 소인을 멀리 배척해야[遠小人] 본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는 성학의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sup>52)</sup>

우선 김우옹은 제왕의 학문에 대해, 그것은 몸에 체득하여 현실에 시행된 후에야 학문이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왕의 학문은 몸에 체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는 이같은 규정은 수기와 치인 모두를 주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를 전제하면서 이어 성학의 핵심 내용으로 ‘定志’·‘講學’·‘敬身’·‘克己’·‘親君子’·‘遠小人’의 여섯 항목을 들고 있다. 이 여섯 항목은 크게 보아 ‘정지’와 나머지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뜻을 정해야 한다는 ‘정지’에 대해서는 김우옹이 평생에 걸쳐 수차례 선조에게 강조했던 것이다. 경세의 문제는 오직 군주의 일심에 달려 있다는 군주 중심의 경세론을 주장하는 그의 입장에서 군주가 뜻을 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바 있는 三代의 道, 즉 古道를 현실 정치에서 행하겠다는 의지를 세운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고도를 현실 정치에서 행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定志箴’에서 다음과 같은 程伊川의 유명한 말을<sup>53)</sup> 인용하고 있다.

52) 『東岡集』 卷15, 「箴」, 『進聖學六箴』 이하 「성학육잠」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경우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53) 『二程全書』 卷50, 「附錄」 伊川年譜, “皇祐二年 年十八 上書闕下 勸仁宗以王道爲心 生

왕도를 행할 것으로 마음을 삼아	王道爲心
생령들을 염두에 두고	生靈爲念
세속의 논의들을 물리침으로	黜世俗論
비상한 공효를 기약하도다	期非常功

김우옹에게 고도를 현실 정치에서 행한다는 것은 곧 왕도정치를 의미하였고, 그것은 생민을 위한 민본정치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같은 정치는 추상적이거나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질적인 ‘功效’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치인까지를 경의 주재 대상에 포함시킨 김우옹이었기에 그는 결코 치인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땅히 민을 걱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함을<sup>54)</sup> 역설했던 그가 이이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개혁을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sup>55)</sup> 이처럼 김우옹의 성학론에서는 군주가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뜻을 정한 뒤에는 이를 행하기 위한 항목으로 ‘講學’·‘敬身’·‘克己’·‘親君子’·‘遠小人’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앞의 인용문에 따르면, 강학은 모든 일과 사물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경신은 천리를 보존하는 본령의 공부이며, 극기는 인욕을 막기 위한 力行의 요체였다. 친군자와 원소인은 각기 덕성의 보양과 본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우옹에게 이 다섯 항목은 모두 고도를 실천하기 위한 경공

---

靈爲念 黜世俗之論 期非常之功”

54) 『宣祖實錄』卷11, 宣祖 10年 5月 戊戌條

55) 김우옹의 민본정치를 위한 제도개혁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가 강조한 경을 수기의 차원에서만 인식한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부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강학을 통해 모든 일과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窮理 공부도 主敬을 요체로 하는 것이며,<sup>56)</sup> 경신은 천리를 보존하는 본령이고, 인욕을 막기 위한 역행의 요체인 극기는 경신에 포함되는 것이었다.<sup>57)</sup> 친군자와 원소인은 덕성을 보양하고 본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앞서 김우옹의 심성론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덕성과 본심을 보존하는 방법은 경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정지를 제외한 다섯 항목은 모두 경 공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김우옹의 성학 체계는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정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경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58)</sup> 그것은 다시 말하면 치인의 단계에서 목표로 세운 왕도정치를 경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그의 경세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우옹은 오직 경을 통해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행해야 한다는 군주성학론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경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그가 군주의 수신만을 중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왕의 학

56) 『宣祖實錄』 卷7, 宣祖 6年 9月 戊戌條, “此則窮理之事 而要在主敬工夫爲之本領也”

57) 『宣祖實錄』 卷8, 宣祖 7年 4月 丁巳條, “上曰……敬身與克己 有以異乎 恐敬身可以包克己也……宇顛對曰 固然 但臣意以爲 但言敬身 則可以包克己在中 若并言之 則敬慎只是戒懼操持 存天理底意思 克己則就私欲萌動處 便下勇猛工夫 遏人欲底意思”

58) 「성학육잡」의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는 ‘정지-강학’, ‘경신-극기’, ‘친군자-원소인’의 세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각각을 학문을 위한 기본 조건, 학문의 요체, 학문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인간관계를 제시한 것이라는 견해이다(鄭羽洛, 앞 논문(1999), 152~162쪽). 다른 하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정지’, 修己의 교육내용인 ‘강학-경신(극기)’, 治人的 교육내용인 ‘친군자-원소인’의 세 구조로 보는 것이다(宋準湜, 앞 논문, 73~74쪽).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경을 수기와 치인 모두를 주재하는 것으로 보는 본 논문의 입장에서는 ‘정지’와 ‘강학-경신-극기-친군자-원소인’의 두 구조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은 현실 정치에 확대 적용되어야 진정한 제왕학이고, 왕도정치의 이념은 정치 현실에서 실질적인 공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였기에 내면의 수기는 오히려 현실의 치인과 관련될 때에만 의미있는 것이었다. 경을 강조했던 그가 경의 주재 대상에 치인까지를 포함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김우옹의 경세론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를 정리하면서 그의 경세론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시작된 사림정치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오랫동안 훈척과 권간들이 정치를 농단하면서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적폐,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의 피해가 그것이었다. 김우옹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기강의 문란으로 보았다. 그에게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전 시대의 권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배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리들이 법을 무시하고 민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기강을 확립하고 이로써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김우옹에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군주였다. 그가 군주 중심의 경세론을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성인의 학문인 聖學을 군주에게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어진 신하인 군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였지

만, 김우옹은 천하의 모든 일은 오직 군주 한 몸에 근본하는 것이라 함으로써 天道의 실현자로서 군주의 독자적·절대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書經』의 「洪範」에서 군주의 표준을 의미하는 ‘皇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황이나 이이는 황극을 군주에게 修身을 요구하는 경전적 근거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김우옹은 이를 동·서 분당에 대처하는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 때의 황극은 동인과 서인을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그런 표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도의 유일한 실현자로서 피차의 구분을 떠나 오직 선과 악만을 판단하는 大公至正한 군주의 표준이었다. 따라서 이 표준에는 동인과 서인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고, 분열과 대립은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황극을 통해 봉당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우옹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숙종대에 박세채가 주장하고 이후 18세기 탕평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 군주 중심의 황극탕평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의 존재와 역할을 강조한 만큼 김우옹에게 제왕학으로서의 성학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것은 곧 군주가 표준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여기서 군주가 세워야 할 표준은 天理와 民彝를 의미하였고, 이는 시대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古道였다. 이 고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三代의 心法을 공부해야 했는데, 김우옹은 이를 공부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오직 ‘敬’ 하나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경은 ‘動靜을 관통하고 表裏를 꿰뚫어 항상 一心의 주장이 되어 萬事의 강령을 이끄는 것’이었다. 경에 대한 이같은 인식 자체는 주자와 마찬가지로 이황이나 이이와도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그가 일심의 주제가 되어 만사의 강령을 이끄는 경을 그 누구보다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우옹은 경이 내면의 심뿐만 아니라 외면의 행위 규범까지를 주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에게 경은 修己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의 수기는 현실의 治人과의 관련하에서만 의미가 있었다.

김우옹은 이같은 의미를 지닌 경을 중심으로 군주성학론을 체계화하였는데, 그것이 「聖學六箴」이었다. 여기서 그는 우선 제왕학은 몸에 체득하여 현실에 시행된 후에야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전제로 성학의 핵심 내용을 ‘定志’·‘講學’·‘敬身’·‘克己’·‘親君子’·‘遠小人’의 여섯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크게 ‘정지’와 나머지 다섯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도의 실현자로서 군주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했던 그는 무엇보다 먼저 군주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어지는 나머지 다섯 항목은 모두 고도를 실천하기 위한 경 공부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치인의 단계에서 목표로 세운 민을 위한 왕도정치를 오직 경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그의 경세론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김우옹의 군주 중심의 경세론은 사림정치가 행해지던 선조대 당시에는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경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김우옹은 이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경보다는 ‘誠’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학 체계를 세운 이이와는 달랐다. 또한 현실 정치에서 치인의 실질적 공효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김우옹은 이황과 달랐고,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이이와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군주에게 성학을 요구하면서 賢臣의 역할을 강조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유

독 김우옹은 군주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이후 본격적으로 봉당정치가 전개되면서 그의 경세론이 잊혀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18세기가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군주 중심의 탕평론의 원형을 16세기의 김우옹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論語』  
『二程全書』  
『宋史』  
『朝鮮王朝實錄』  
『大東野乘』  
『退溪集』  
『牛溪集 年譜補遺』  
『栗谷全書』  
『東岡集』  
『西厓集』

### 2. 저서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 일조각, 1994.  
金墩,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 서울대출판부, 1997.

- 韓春順, 『明宗代 勳戚政治 研究』, 혜안, 2006.  
 김범, 『사회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강문식, 『권근의 경학사상 연구』, 일지사, 2008, 264~280쪽

### 3. 논문

- 金光淳, 「東岡의 生涯와 思想的 志向」, 『동방학지』 36·37, 1983.  
 權仁浩, 「東岡 金宇顒의 學問과 思想研究」, 『남명학연구논총』 2, 1991, 27쪽  
 李相弼, 「壬亂時 在朝 南冥門人의 活動」, 『남명학연구』 2, 1992.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44~145쪽  
 禹仁秀, 「朝鮮 肅宗朝 南溪 朴世采의 老少仲裁와 皇極蕩平論」, 『역사교육논집』 19, 1994, 106~110쪽  
 韓相奎, 「金東岡의 教育思想」, 『남명학연구논총』 3, 1995.  
 한희숙, 「16세기 임궫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89, 1995.  
 李碩圭, 「朝鮮初期 官人層의 民에 對한 認識」, 『역사학보』 151, 1996.  
 權仁浩, 「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 『남명학연구논총』 5, 1997.  
 金洪永, 「東岡 金宇顒의 讀書論과 學問的 性向」, 『남명학연구』 6, 1997.  
 鄭在薰, 「朝鮮前期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진단학보』 86, 1998, 122~134쪽  
 薛錫圭, 「東岡 金宇顒의 政治哲學과 朋黨論의 展開」, 『남명학연구논총』 7, 1999, 456~475쪽  
 鄭在薰, 「『聖學輯要』를 통해 본 朝鮮中期의 政治思想」, 『규장각』 22, 1999, 112~115쪽  
 鄭羽洛, 「金宇顒의 經典理解方法과 『聖學六箴』의 意味構造」, 『동방한문학』 16, 1999, 152~162쪽  
 \_\_\_\_\_, 「金宇顒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精神構圖의 特性」, 『한국사상과 문화』 7, 2000.  
 김정신, 「朝鮮前期 士林의 ‘公’ 認識과 君臣共治論」, 『학림』 21, 2000, 73~84쪽  
 李相夏, 「東岡 金宇顒의 出處와 학문」, 『남명학연구』 11, 2001.  
 宋準湜, 「東岡 金宇顒의 帝王教育論」, 『남명학연구논총』 10, 2002, 73~74쪽

- 蔡輝鈞, 「東岡 金宇顒 『天君傳』의 敎育적 의미」, 『남명학연구논총』 12, 2003.
- 金伯哲, 「조선 후기 영조대 백성관의 변화와 '民國」, 『한국사연구』 138, 2007, 134~136쪽
- 이영호, 「東岡 金宇顒의 朱子學 수용 양상」, 『남명학연구』 24, 2007.
- 윤정, 「英祖의 『聖學輯要』 이해와 君師 이념」, 『역사와 경계』 66, 2008.
- 李碩圭, 「조선 明宗代의 求言과 民本理念의 변질」, 『조선시대사학보』 51, 2009, 113~116쪽
- \_\_\_\_\_, 「16세기 조선의 민본이념과 民의 성장」, 『한국사상사학』 39, 2011.

Abstract

## Kim U-Ong's Monarch-Centered Political Theory

Lee, Seock-Kyu

This essay deals with Kim U-Ong(金字顛)'s monarch-centered political theory. Kim U-Ong thought that the most urgent political task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宣祖) was to establish official disciplines for the stability of people's ordinary life. According to him, the monarch himself was the key to the task, since only the ruler possessing absolute status could realize the teaching of the Heaven. In regard of the fact that most contemporary scholars required the ruler of Sage Learning(聖學) while placing emphasis upon the role of wise politician, his monarch-centered political theory was pretty much unique. For instance, Yi Hwang(李滉) and Yi Ih(李珥) used HwangGeuk(皇極) - 'the standard of monarch' - as the ground of their demand of king's moral training. Although, Kim U-Ong considered HwangGeuk the standard of monarch as well, his stance was different: HwangGeuk was to him the basis for judging good and evil regardless of Dong-In(東人) or Seo-In(西人). This theory became the prototype of monarch-centered HwangGeukTangPyeongRon(皇極蕩平論) claimed by Park Se-Chae(朴世采) who lived in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Since Kim U-Ong gave prominence to monarch's existence and role, Sage learning as a discipline of kingship was very important to him. He advocated the idea of Sage Learning in which the 'Rule of Right(王道政治)' should be by and for people thorough 'Awe(敬).' His insistence on 'Awe,' however, did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valued only moral training of the monarch. King's moral training was meaningful only when it was related to governing of people, because he thought that disciplines of kingship should apply to actual politics. That was why he paid attention to ruling of people when he dealt with 'Awe.'

Key Word

Kim U-Ong, Political Theory, HwangGeuk, Theory on Political Party, Sage Learning

▪ 논문투고일 : 2015.6.23 심사완료일 : 2015.8.14 게재결정일 : 2015.8.14